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금주의 GVC Insight



최신 GVC 해외 이슈

【원유, 글로벌】 G7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 합의, OPEC+ 원유 감산 계획 발표

【가스, 유럽】 러시아 유럽 천연가스 공급 중단 발표, 중국행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추진

【경제, 중국】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상하이 이어 청두·선전도 전면 봉쇄, 경제 충격 우려

【반도체, 미국】 미국, 중국·러시아에 사용 반도체 칩 수출 금지 명령

【전기차 보조금, EU】 EU 집행위, 美 전기차 보조금 제도 WTO 협정 위반 우려 표명

【CEPA,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의회, 한-인도네시아 CEPA 비준 통과 발표

【배터리, 미국·일본】 도요타자동차, 美 배터리 생산 공장에 투자 2배 이상 확대 결정

※ 추석 연휴로 다음주는 쉬어갑니다



GVC 뉴스 더하기

- ① 美 개정 「외항해운개혁법」, 공급망 안정화 기대
- ② EU 전력시장 구조개혁 추진



GVC 기초상식

선박과 운임지수의 종류 3편 - 해상운임지수



GVC 돌보기

- ① 핵심광물 개념 및 주요국 동향
- ② (추석 특집) 추석 성수기 주요 과일 공급가격 전망



GVC 전문가

2022년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 동향 - 맥킨지



특별기고 (전략물자관리원)

미국 투자심사 제도 2편 (Outbound)



GVC 소식통

- ①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사업 안내
- ② 공급망 관련 상담회 및 세미나 개최 소식

최신 GVC 해외 이슈

● **【원유, 글로벌】 G7 러시아産 원유 가격상한제 시행 합의, OPEC+ 원유 감산 발표**

- 9.2일 G7 재무장관 회의(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에서 원유 가격상한제 시행 합의, 국제적으로 합의된 가격 이상으로 매입된 러시아産 원유 등에 대해 운송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 및 여러 조치 검토 중
 - EU는 12.5일부터 러 원유 수입금지 조치 시행 예정으로 G7은 시기에 맞춰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 추진 중
 - G7 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유가 일정 가격 이하로 판매되지 않으면 자금 조달과 보험 가입을 금지하는 방안 검토 중. 전 세계 해상운송의 90% 이상은 G7을 통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다른 국가들은 원유 수입시 가격상한제 동의 필요
- 9.5일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非OPEC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는 다음달부터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을 지금보다 1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
 - OPEC+는 세계 각국의 금리 인상, 중국 코로나19 재봉쇄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할 수 있다는 사유를 원유 감산 명분으로 내세움
 -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금번 원유 감산 결정에 대해 △G7의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 움직임에 대한 경고, △美 이란 핵합의 복원에 대한 사우디의 반발 등 다양한 해석 제기
- OPEC+의 감산 결정으로 지난 6월 이후 하락세인 국제유가는 급등하여 서부텍사스유(WTI)는 전날보다 2.28% 상승한 88.85달러, 북해산 브렌트유는 2.38% 오른 95.23달러 기록

출처 : 연합뉴스(22.9.1), 뉴시스(22.9.2), 매일경제(22.9.4)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 **【가스, 유럽】 러시아 유럽 천연가스 공급 중단 발표, 중국행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추진**

- 9.5일 러시아 가스프롬은 유럽행 천연가스 공급라인을 무기한 폐쇄한다고 발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르드스트림1을 통한 가스 공급을 완전히 재개하는 것은 서방의 러시아 제재 해제 여부에 달렸다”고 밝힘
 -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은 유럽向 가스관인 노르드스트림-1은 정기점검을 위해 8.31일부터 3일간 폐쇄 후 9.3일 재가동 예정이었으나, G7의 원유 가격상한제 합의 발표 이후 무기한 가동 중단 발표
- 러시아는 유럽을 대신할 천연가스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 중-러 천연가스관인 ‘시베리아의 힘-2’ 건설에 속도를 내는 등 반서방 경제협력 강화. 러시아는 미얀마와도 가스 공급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니콜라이 슐기노프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은 9.6일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가는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사업의 자재들이 거의 준비됐다”며 “가스프롬이 서방에 공급해 온 천연가스를 아시아로 돌리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힘
- 러시아의 조치로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10월물은 전일 대비 약 17% 오른 244.5유로에 마감했으며, 유럽 경제에 대한 우려로 달러대비 유로화 가치도 0.7% 내린 0.988달러로 하락하며 20년 만의 최저치 경신
- 한편,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옮겨올 극심한 에너지난이 예상되는 독일과 프랑스는 전기와 가스를 서로 나눠 쓰기로 했다고 발표
 - 9.5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총리와 화상 회담 후 “필요시 프랑스는 독일에 가스를, 독일은 프랑스로 전기를 보내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나눠 쓰기로 했다”고 밝힘

출처 : 한국일보(22.9.5), 서울신문(22.9.5), 조선일보(22.9.5) 등 종합

● 【경제, 중국】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상하이 이어 청두·선전 전면 봉쇄, 경제 충격 우려

- 중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9.1~4일 청두 전면 봉쇄 단행. 주민 약 2,100만 명을 전수 검사했으며 더 많은 검사를 위해 7일까지 3일간 봉쇄 기간 연장
 - 청두는 충칭, 상하이, 베이징에 이어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내륙 경제 중심도시로 중국 전체 GDP의 1.7% 차지
 - 토요타, 폭스바겐 등 청두 주요 공장들은 봉쇄 장기화에 대비해 직원이 공장 내에 거주하는 '폐쇄루프' 가동 시작
- 선전도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9.3~4일 이틀간 전체 9개 구 중 6개 구를 봉쇄하고 코로나 전수조사 실시. 9.4일부터는 지역별 위험도를 등급별로 분류하여 위험도가 낮은 지역은 주거용 아파트 내로 제한했던 인구이동 해제. 그 외 지역은 봉쇄를 유지하고 지역감염이 확인된 지역은 3일간 봉쇄 연장 전망
 - 당국은 대중교통 서비스 중단, 주민 외출 제한, 식료품 구매를 위해 가구당 1명만 하루 1번 외출 허용 등 조치
- 중국의 대표 경제지 '차이신'은 현재 33개 도시가 봉쇄를 실시하고 있어 6,500만 주민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추산. 청두와 선전의 사실상 전면 봉쇄가 장기화 될 경우 중국 및 세계 경제에 타격 우려
 - 상하이가 지난 3월부터 약 2개월간 전면 봉쇄에 들어감에 따라 수많은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0.7%에 그치는 등 타격을 입은 가운데, 청두와 선전의 합산 GDP는 4.4%로 앞서 봉쇄했던 상하이(3.8%)보다 큰 규모로 중국 경제에 치명타 우려

출처 : 뉴스원(22.9.5), 머니투데이(22.9.5) 등 언론보도 KOTRA 중국지역본부 종합

● 【반도체, 미국】 미국, 중국 및 러시아에 시용 반도체 칩 수출 금지 명령

-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AMD는 8.31일 미국 정부로부터 인공지능용 최첨단 반도체의 중국 및 러시아 수출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밝힘
 - 엔비디아의 수출 금지 대상은 그래픽처리장치 GPU 중 인공지능용 반도체인 A100 및 H100 등이며 앞으로 개발할 제품 중 집적회로와 이를 포함하는 모든 시스템에 즉시 적용됨
 - 수출금지에 대한 명령은 러시아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두 기업 모두 러시아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음
 - 엔비디아의 경우 약 59억 달러가 예상되었던 3분기 매출에서 4억 달러 규모가 감소할 위기
- 美 행정부는 이들 기업의 최첨단 기술이 중국의 무기 개발이나 안면 인식 및 기타 군사 용도로 이용하기에 적합하고, 정보수집과 같은 군사 목적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특정 반도체장비 수출 제한 조치
 - 엔비디아 측은 이 조치가 중국군에 의해 관련 장비가 사용될 잠재적 위험성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힘
- 금번 조치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자 엔비디아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칩의 중국 수출은 금지되지만, 중국 공장에서 개발되는 것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해명. 그러나, 미국 정부가 중국 개발을 허용한 것은 엔비디아가 중국 사업을 철수할 수 있도록 시간 여유를 준 것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의견도 존재
 -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과학기술 패권주의라 반응하며 자국 과학기술 우위를 이용해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이라 비판

출처 : CNBC(22.9.1), 연합뉴스(22.9.2), JTBC 뉴스(22.9.2) 등 언론보도 KOTRA 실리콘밸리무역관 종합

● 【전기차 보조금, EU】 EU 집행위, 美 전기차 보조금제도 WTO 협정 위반 우려 표명

- EU 집행위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제도가 WTO 협정에 위반하는 차별적 조치이며, 美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권을 제한할 것이라며 우려 표명
 - EU는 미국의 IRA 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전환과 관련하여 적극적 협력 방침을 표명했으나, 전기차 보조금제도에 대해서는 WTO 차별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

- 또한, EU 전기차 제조사 등에 대한 차별은 결국 美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권을 제한하여 미국의 전기차 보급에 장애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
- 앞서 유럽의회도 전기차 보조금제도가 환경보호 목적의 통상 규제로 볼 수 없고, 캐나다, 멕시코 등 USMCA 체결국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차별적 제도라며 WTO 제소 방침 표명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2.9.2)

● **[CEPA,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의회, 한-인도네시아 CEPA 비준 통과 발표**

- '20.12월 양국이 처음 서명한 한-인도네시아 CEPA 공동성명 이후 약 1년 8개월 만에 인도네시아 의회는 8월 30일 개최한 본회의를 통해 양국 CEPA 협정 비준안 승인
-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시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8%, 인도네시아는 94.8% 관세가 철폐될 예정
 -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강판용 철강 제품(5~15%), 의류(5%), 베어링, 기계부품(5%) 등을 즉시 관세 철폐하고 정밀화학제품(5%)의 경우 즉시 또는 향후 5년 이내 관세를 철폐할 예정
 - 한국은 정밀화학제품(5%), 원당(3%), 맥주(15%) 등을 즉시 또는 향후 5년 이내 관세 철폐할 예정이며 플라스틱류, 고무제품, 자동차 부품에서 관세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
- 인도네시아 통상산업부 장관은 CEPA 체결을 통해 약 88.4억 달러 규모로 교역량이 증가하고 한국으로부터 다양한 산업 및 서비스 분야 투자가 기대된다고 평가
- 인도네시아 언론과 의회는 2023년 1월부터 발효 예정으로 전망. 다만, 정확한 발효 일자리는 양국의 서면 통보 시점과 내용을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22.9.2)

● **[배터리, 미국·일본] 토요타자동차, 美 배터리 생산 공장에 투자 2배 이상 확대 결정**

- 8.31일 토요타자동차는 미국에서 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 생산 확대를 위해 美 노스캐롤라이나주 Liberty의 배터리 新공장에 대한 투자를 12억 9,000만 달러에서 38억 달러로 늘릴 것이라고 밝힘
 - 북미지역 토요타 수석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이 공장은 완전히 전기화된 미래를 향한 토요타의 리더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203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힘
 - '22.10월 초기 투자 계획 당시 노스캐롤라이나주는 투자금액이 30억 달러를 넘길 경우 토요타에 대한 지원액을 최대 3억 1,500만 달러까지 늘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토요타의 美 Liberty 공장 투자 확대는 최근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 및 혼다자동차-LG에너지 솔루션의 美 배터리 공장 건설 발표 이틀 만에 나온 것임
- 한편, 토요차는 일본 최대 배터리기업인 파나소닉과 공동 출자한 효고현 히메지시 국내 공장에 대한 4천억엔 투자계획도 발표. 이를 통해 토요차는 日·美 합계 최대 40GWh 규모의 배터리 생산능력을 갖춰 '24~'26년 생산을 개시할 계획
 - 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 1위인 토요차는 '30년까지 30종의 전기차를 출시해 연간 350만 대 전기차 판매 목표

출처: New York Times(22.8.31), REUTERS(22.9.1) 등 언론보도 KOTRA 실리콘밸리무역관 종합



GVC 뉴스 더하기 ① : 美 개정 「외항해운개혁법」, 공급망 안정화 기대

※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불안정한 글로벌 물류가 공급망 병목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외항해운개혁법」을 개정하여 공급망 안정화 및 물가상승률 완화를 도모하고 있음. 법안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자

● 美 「외항해운개혁법(OSRA)」 개정 개요

- (목적) 연방해사위원회(FMC)의 해운업계 감독 권한 확대 및 해운업계 책임 강화
- (추진 경과) '22.3.22 상무위원회 통과 → '22.3.31 상원 통과(만장일치) → '22.6.13 하원 통과 → '22.6.16 바이든 대통령 최종 서명

- 주요 내용

- 해운업계의 서비스 표준 준수 요구, 美 수출업자에 대한 부당한 선적 제한 금지 및 美 수출업자의 他 운송사 이용에 따른 보복·차별 금지
- FMC는 매년 서비스 표준 위반 운송업체 명단과 부과된 처벌 내용·결과 공지
- 해운업체는 미국에서 처리한 수출입 물동량과 20피트(TEU) 기준 공(空) 컨테이너 수량을 FMC에 분기별로 보고
- FMC는 부당한 화물 초과보관료(Demurrage)나 반환연체료(Detention) 금지 규칙 제정
- FMC에 해운 수수료·요금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권한과 운송계약 협상을 개선하기 위한 해운 거래정보 등록 권한 부여
- 추가로 상원 법안은 초과보관료·반환연체료(D&D)를 연방법에 근거해 부과할 것을 명시하고, 비용 관련 소송시 선사가 합법성을 입증하도록 추진

● 입법 추진 배경

- 바이든 대통령의 공급망 안정화 및 물가인하 주요 전략 중 하나로, 3대 해운동맹(Alliance)에 대한 美 정부의 견제능력 강화가 주요 목적

-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망 행정명령(21.7.9) 등을 통해 해상 운송업이 3대 해운동맹(2M, OA, TA)이 전체 서비스 제공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과점시장으로 변모했으며, 이로 인해 해상운임이 과도하게 인상되었다고 비판
 - * 우리 기업은 현대상선이 3대 해운동맹 중 The Alliance(TA)에 정식 가입(19.7)
- 백악관은 팩트 시트(22.2.28)를 통해 해상운임의 과도한 인상을 비판. 아시아-미국간 스팟(현재 시장가로 지급하는 일회성 단기거래 가격) 운임은 최근 2년 사이 100% 인상. 화물수송 운임은 1,000% 이상 인상됨
 - * FMC에 따르면 '21.3분기 8개 대형 해운사의 운임 청구액은 총 22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50% 증가

- 물류 관계 업자들의 화물 컨테이너 관련 반시장 행위로부터 美수출업자 보호 필요성 절감

- 美 수출업자들은 아시아發 수출 운임이 미국발 운임보다 높은 것을 악용한 선사들이 미국에서 美수출업자들의 화물 대신 공컨테이너를 선적해 아시아 시장에서 활용하는 관행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
- 항만 관계자들은 대형 해운사들이 도입한 '지정 컨테이너 사용 규칙(Box rules)'이 운송 컨테이너 건별로 수당을 받는 화물트럭 운전자들에게 부당하며, 동 규칙이 항만 적체 심화 및 불합리한 초과보관료·반환 연체료의 원인이라 주장

● 최근 동향

- '22.12월까지 하위 법령을 발표할 계획으로, FMC는 규정 마련에 앞서 조직 개편 등의 준비 작업 착수. 우선 집행·조사·준법감시국(BEIC)을 창설하고 이 부서에 조사와 기소 기능을 통합하기로 결정
 - BEIC는 산하에 집행, 조사, 준법감시 3개 과를 두게 되며, 수사 경험이 있는 고위공무원 출신의 변호사를 신설 부서 수장에 앉히고 조사관 등 직원 9명 총원 계획
- FMC는 분기별로 미국 항만에서 처리한 수출입 화물 실적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해운법에 맞춰 매월 1,500TEU 이상을 운송하는 해운사에서 화물 중량과 물동량 개수를 수집하는 계획 수립. **미국 수출입 물동량 정보 수집 절차도 입법예고**
 - 현재 당국에 등록된 154곳의 해운사 중 70곳 정도가 매월 1,500TEU를 웃도는 물동량을 운송하고 있고, 이들이 취급하는 물동량은 전체 수출입 화물의 99%에 이른다고 설명
 - FMC는 60일 동안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보수집 방안을 확정할 예정

● 현지 반응 및 향후 전망

- 미국이 해운물류 시장 규제를 보완한 것은 1999년 「외항해운개혁법(OSRA 1998)」 발효 이후 23년만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개정 해운법이 미국 국민의 비용을 줄이고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해운법 개정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음
 - 美의류신발협회(AAFA) 스티브 라마르 의장은 “동 개정안이 불공정한 해운 시장 환경을 조속히 개선해 美수출업자들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강조
 - 화주 단체들은 “초과보관할증료를 부당 징수한 선사나 포워드(무선박운송인)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3년 가까운 소송기간과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이었는데 제도 개선으로 소송 부담 완화가 기대” 된다고 환영
 - 한편, 세계선사협회(WSC) 존 버틀러 의장은 “동 개정안은 공급망 붕괴의 책임을 해운업계에만 묻는 부당한 처사이며, 이미 내륙운송까지 확대된 물류 적체 현상은 단순 규제로 해결할 수 없다”며 항의
- 그러나, OSRA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시행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
 - 유럽연합은 세계 3대 규모인 해운업체(Maersk, MSC, CMA CGM)를 '24년까지 반독점 협정 규정 대상에서 면제. EU 반독점 규제 당국은 EU가 주도하는 과점시장이 오히려 가격인하 및 소비자 서비스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여 美정부 입장과 대립할 전망
 - 미국발 공컨테이너 수량의 감소로 아시아발 수출 운임이 인상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OSRA의 해상운임 인하 목표 달성이 지연될 가능성 또한 상존
- 또한, 8.24일 뉴욕타임즈(NYT)는 공급 측 요인으로 美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美 행정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소비 수요’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와 보도. 동 법 시행을 통한 공급망 병목 현상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는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전망
 - 뉴욕연준 연구책임자인 Julian di Giovanni는 '19~'21년 ‘소비 수요’가 미국 인플레이션에 60%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인력·원자재 및 선적 컨테이너 부족을 포함하는 ‘공급 충격’은 40% 수준으로 공급 제약은 수요 확대가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을 증대시키는 역할 수행



GVC 뉴스 더하기 ② : EU 전력시장 구조개혁 추진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7개월째 지속되며 EU는 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EU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살펴보자

● (검토 배경) 러-우 전쟁 이후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EU 내 전기요금도 덩달아 폭등

- 독일(995유로/MWh)과 프랑스(1,130유로/MWh)의 전기요금은 작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
- 전력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연료-전력가격 연동제*가 지목됨

* 당일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사용된 발전용 연료의 가격(해당일 가장 비싼 전력 공급원의 가격)을 기준으로 전력 도매가격을 산정하는 방식. 현재 주로 가스 가격이 발전단가를 좌우

〈EU 가스가격(TTF) 추이〉 (유로/MWh)



출처: FT, 자료: Refinitiv

- ▷ 러시아의 가스 공급 축소 (노르드스트림-1)
- ▷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지
- ▷ 가뭄으로 인한 수력발전량 감소
- ▷ 강 수위 저하에 따른 석탄 운송의 어려움



가스 가격 상승



가스 가격과 연동된 전력가격 상승

● (추진 현황) EU 에너지장관 이사회는 9월 9일 긴급 회의를 개최하여 전력시장 개혁방안을 협의할 예정

※ 폰 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8.30) : “유럽 전력시장은 현재와는 다른 상황에서 구축된 것”
“전기가격 급등으로 현행 EU 전력 시장의 한계 드러나... 비상개입 및 구조적 개혁 필요”

- 단기적으로는 가격상한제 도입, 중장기적으로는 연료-전력가격 연동제 폐지 논의
 -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베리안 예외조치(Iberian Exception)’를 통해 이미 가스-전력가격 연동을 1년간 적용 면제하고, 전기 1MWh당 50유로의 상한 적용 중
 - * 다만, 스페인의 저렴한 전력이 프랑스로 수출되면서 스페인의 전력상한제 예산이 프랑스 가계 보조금으로 작용하는 ‘세금 유출’ 문제 발생 → 이를 유럽 차원의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 제기
- 에너지·전력 생산자의 초과이윤에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
 - 스페인, 이탈리아, 루마니아와 그리스는 이미 횡재세를 도입하였으며, 독일도 도입 적극 검토 중
- 이외에, △신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 가격 이원화*, △입찰가 지불방식**(pay-as-you-bid) 등도 제안
 - 다만, 두 방안 모두 전력가격 인하에 한계가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낮아져 투자이익 저하가 우려됨
 - * 신재생-화석연료 시장 분리 후 신재생에너지 판매 가격을 고정하고, 소비자는 두 시장의 평균 가격을 지불하는 방안(그리스 제안)
 - ** 전력생산자가 발전 비용에 근거해 전력 가격 산정 후 소비자에 제안하는 방법

● (향후 전망) 현재 EU 집행위원회는 개편 방안별 비용-효과 분석 작업 진행 중 → 이르면 오는 10월경 관련 분석보고서 제출 → 내년초 기술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할 예정



GVC 기초 상식: 선박과 운임지수의 종류 3편 - 해상운임지수

※ 선박은 세계 물류의 85%,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7%(9억5500만톤)를 차지하는 중요한 운송 수단임. 글로벌 물류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선박의 종류와 용어, 해상운임지수 등에 대해 알아보자

〈선박과 운임지수〉

25호: 선박의 종류
26호: 선박 용어
27호: 해상운임지수

● 해상운임지수란?

- 해상운임지수는 어느 특정 시점의 해상 운임을 기준으로 운임의 변화를 비율로 나타낸 수치로 해운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해상운임지수를 통해 해운 시장(선박을 이용한 운송·거래 상황)의 변동을 알 수 있음

● 해상운임지수의 종류

- 해상 운임지수는 △선종별 해상운임지수와 △컨테이너시장 해상운임지수로 나뉘며, 각 분야별로 △건화물선 운임지수(BDI 지수)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 지수)가 가장 많이 활용됨

해상 운임 지수	선종별 해상운임지수	①건화물선 운임지수(BDI ; Baltic Dry Index) ②유조선 운임지수(WS ; World Scale)
	컨테이너시장 해상운임지수	③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 ; Shanghai Containerized Freight Index) ④중국 컨테이너 운임지수(CCFI ; 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⑤컨테이너선 종합 용선지수(HRCI ;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① 건화물선 운임지수 (BDI, Baltic Dry Index)

- (개념) 현물시장에서 오늘 배를 1척 빌리는 가격을 나타내는 지수(85.14일 기준(=1,000))로, 배들이 원자재를 '얼마나 많이' 싣고 '얼마나 자주' 돌아다니는지를 나타내 주는 지표
 - 석탄, 철광석, 시멘트, 곡물 등 원자재를 싣고 26개 주요 해상 운송경로를 지나는 선적량 1.5만톤 이상 선박의 화물운임·용선료(선박을 빌리는 비용) 등을 종합해 산정(영국 발틱 해운거래소에서 매일 발표)
 - * 용어 중 'Dry'가 들어간 것은 선적 화물이 광석, 석탄, 곡물 등 마른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원유 제외)
- (의미) 원재료 수요가 늘어 교역량이 증가하면 선박의 운송비용이 올라 BDI가 높아지는데 이는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여 세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표의 기능을 함
- (분류) 선박의 유형에 따라 △BCI, △BPI, △BSI, △BHSI 등으로 세분화됨

지표	선박의 등급	재화중량톤수(DWT)
BCI (Baltic Capesize Index)	Capesize	8만톤 이상
BPI (Baltic Panamax Index)	Panamax	6~8만톤
BSI (Baltic Superamax Index)	Superamax	4~6만톤
BHSI (Baltic Handy Size Index)	Handy Size	2.5~3만톤

② 유조선 운임지수 (WS, World Scale)

- (개념) 유조선 1회 항행시 용선료를 나타내는 운임지수(두 항만을 왕복으로 항행할 때 선주의 이익이 '0'이 되는 운임 수준을 '100'으로 산정)
 - 유조선의 항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운송 거리도 다르므로 용선 계약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주요 항로의 기준운임을 지수로 나타낸 것(영국 월드스케일협회(WSA)에서 매년 1월, 7월 발표)
- (분류) △원유 유조선 운임지수(BDTI, Baltic Exchange Dirty Tanker Index)와 △석유 제품선 운임지수(BCTI, Baltic Clean Tanker Index)로 세분화됨

③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 Shanghai Containerized Freight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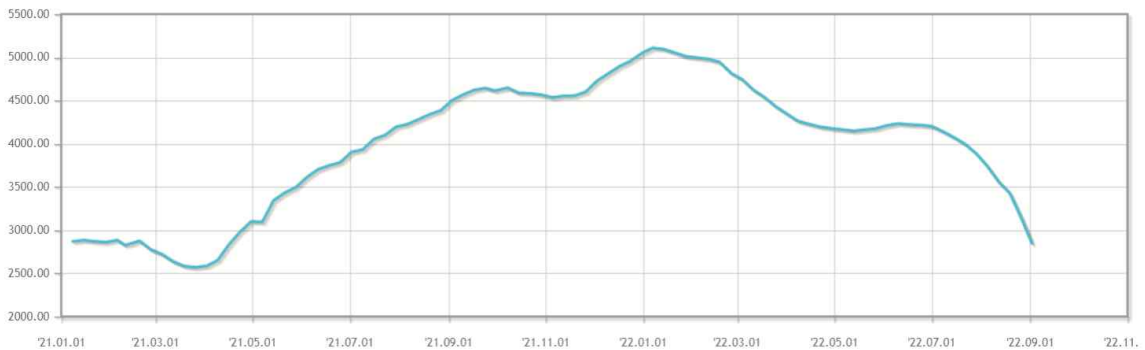
- (개념) 상하이 수출 컨테이너 운송시장 15개 노선의 비정기 단기운송계약(spot) 1개 컨테이너(TEU)당 운임 수수료의 평균 가격을 나타내는 지수('09.10.16일 물동량 기준(=1,000))

- 상하이 해운거래소(SSE, Shanghai Shipping Exchange)에서 '05.12.7일부터 매주 발표
- * SCFI의 15개 주요 노선 : 지중해 베이스포트, 유럽 베이스포트, USWC(미국서안), USEC(미국동안), 중동, 오세아니아, 동·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서일본, 동일본, 동남아, 한국 등

- (의미) SCFI는 '원자재로 만든 중간재·완성품을 탑재한 컨테이너의 물동량'을 의미하므로, 일반적으로 경기가 완전한 회복세를 보일 경우 원자재 운임(BDI지수) 상승 후 컨테이너 운임(SCFI)이 상승함

- SCFI 지수가 상승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①운송시스템의 운영 자체가 대단히 어려워지거나 ②물동량이 갑자기 많아져 컨테이너가 부족해지고 운임 수수료가 상승하는 경우임
- 다만, '①'의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 재난이 발생해야 하며 이 경우 물동량도 함께 감소하기 때문에 SCFI 지수는 큰 폭으로 오르지 못함. 즉 SCFI 지수가 오르면 경제 호황을 의미할 확률이 높음

〈최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

④ **중국 컨테이너 운임지수 (CCFI, 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 (개념) 중국의 항구를 기준으로 11개 주요 루트별 운임을 집계해 산정하는 지수 ('98.1.1일 기준(=1,000))

- 상하이 항운교역소가 매주 금요일 16개 선사들의 운임정보를 집계하여 발표('98.4.13일 첫 공시)

- (의미) CCFI는 SCFI와 유사하게 화물을 운송하는 운임에 대한 지수로, 세계 컨테이너 시장 상황과 중국의 해운 상황을 나타내는 주요 지수 중 하나

⑤ **컨테이너선 종합 용선지수 (HRCI,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 (개념) 전 세계 용선 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12개 선형별 컨테이너선 용선료를 반영한 지수 ('97.1.1일 기준(=1,000))

- 영국의 해운 컨설팅 및 브로커 업체인 하우로빈슨(Howe Robinson)에서 매주 발표

- (의미) HRCI는 용선료 지수, 즉 배를 빌리는 가격에 대한 지수라고 할 수 있음. 선박을 확보하려는 활동이 증가하면 지수가 상승하고 가용 선박 수가 증가하면 지수는 하락

- 유럽의 컨테이너 선사들처럼 선박을 투자 개념으로 소유하고 다른 선사들에게 대선을 통해 수익을 내는 선사들은 용선료의 변동을 반영하는 지수인 HRCI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음

GVC 돋보기 ① : 핵심광물 개념 및 주요국 동향

※ 탄소중립, 신산업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광물 수요 증가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EU 등 주요국들은 니켈,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선정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핵심광물의 개념과 주요국 동향에 대해 살펴보자

● 핵심광물 개념

- ①산업 생산에 필수적이거나 ②단시일 내 대체재를 찾기 어렵고, ③자원이 편재되어 있어 공급 리스크가 존재하는 광물로 국가별 지정 상황 상이
-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화, 수소경제 확산 등에 필수적인 배터리, 촉매, 최첨단기기 등의 생산에 활용되는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 필요성 증대

〈핵심광물 예시*〉

탄소중립 전략	핵심광물	주 수요처	2030 예상 수요 (2020년 대비, IEA기준)	특정국가 의존도	
				광석 생산	처리
친환경 차량, 전기에너지 저장	리튬	배터리양극재	42배 증가	호주, 칠레(77%)	중국(58%)
	코발트		21배 증가	콩고(71%)	중국(64%)
	니켈		19배 증가	인도네시아(32%)	중국(34%)
	흑연(flake)	배터리음극재	25배 증가	중국(70%)	
수소경제	백금족	촉매, 연료전지	3배 증가	남아공(75%)	남아공(NA)
고효율 기기, 신재생에너지	희토류	모터(전기차), 발전기(풍력)	7배 증가	중국(60%)	중국(85%)

※ '21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백금족 및 희토류 등 국내 주요산업 핵심광물 6종 분석

● 주요국 현황

- 미국, EU, 호주 등 주요국들은 자국 내 산업 생산, 광물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핵심광물 선정
- (미국) '18년 35개 핵심광물 선정, '22년 희토류원소를 세분화하고 핵심광물 목록을 변경하며 50개로 확대
- (EU) '11년 이후 3년 주기로 핵심광물 지정, '20년 30개 핵심광물 선정
- (호주) '19년 24개 핵심광물 선정, '22년 2개 광물(고순도 알루미늄, 규소)을 추가 선정하여 현재 26개로 확대

〈미국·EU·호주 선정 핵심광물 비교〉

(공통) 미국·EU·호주 지정 핵심광물		
안티몬(antimony), 베릴륨(beryllium), 비스무트(bismuth), 코발트(cobalt), 갈륨(gallium), 게르마늄(germanium), 흑연(graphite), 하프늄(hafnium), 인듐(indium), 리튬(lithium), 마그네슘(magnesium), 니오븀(niobium), 백금족원소*(platinum group elements), 희토류원소*(rare-earth elements; 미국은 '프로메튬(Pm)' 제외), 스칸듐(scandium), 탄탈륨(tantalum), 티타늄(titanium), 텅스텐(tungsten), 바나듐(vanadium)		
미국	EU	호주
알루미늄(aluminum), 비소(arsenic), 중정석(barite), 세슘(cesium), 크롬(chromium), 형석(fluspar), 망간(manganese), 니켈(nickel), 루비듐(rubidium), 텔루륨(tellurium), 터븀(terbium), 주석(tin), 아연(zinc), 지르코늄(zirconium)	중정석(baryte), 붕산염(borate), 점결탄(coking coal), 형석(fluspar), 천연고무(natural rubber), 인염(phosphate rock), 인(phosphorus), 금속규소(silicon metal), 보크사이트(bauxite), 스트론튬(strontium)	고순도 알루미늄(high-purity alumina), 크롬(chromium), 헬륨(helium), 망간(manganese), 레늄(rhenium), 규소(silicon), 지르코늄(zirconium)

(자료) US Geological Survey 2022, European Commission 2020, 2022 Critical Minerals Strategy

※ △호주와 EU는 희토류(17개)와 백금족(6개)의 모든 원소를 선정, △EU는 희토류를 두 개 광종(경희토류, 중희토류)으로 분류해 선정, △미국은 원소군 내 원소를 아래와 같이 개별 선정

- 희토류(14개): 세륨(cerium), 디스프로슘(dysprosium), 어븀(erbium), 유로퓸(europium), 가돌리늄(gadolinium), 홀뮴(holmium), 란타넘(lanthanum), 루테튬(lutetium), 네오디뮴(neodymium), 프라세오디뮴(praseodymium), 사마륨(samarium), 툴륨(thulium), 이터븀(ytterbium), 이트륨(yttrium)
- 백금족(5개): 이리듐(iridium), 팔라듐(palladium), 백금(platinum), 로듐(rhodium), 루테늄(ruthenium) [오스뮴 제외]

GVC 돋보기 ② : (추석 특집) 추석 성수기 주요 과일 공급가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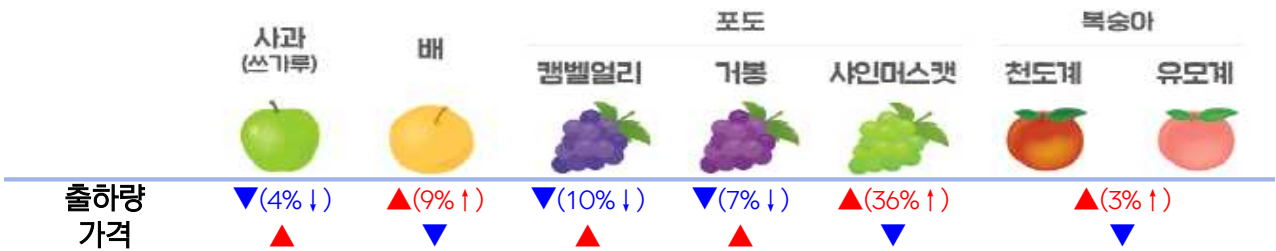
- ◆ 무더웠던 여름이 끝나고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곧 시작된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제수용품으로 사용되는 사과, 배 등 주요 과일의 공급과 가격 전망에 대해 살펴보자
 ※ 자료 전문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 확인 가능

● 추석 성수기(8.20~9.9) 과일 공급가격 전망

- 금년 추석 성수기 사과배 공급은 원활할 전망, 사과 도매가격은 상승, 배는 하락 전망

〈9월 주요 과일 출하 및 가격 전망(전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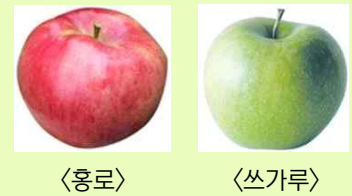
※ ▲ : 상승 ▼ : 하락



● 주요 품목별 전망(서울시 가락시장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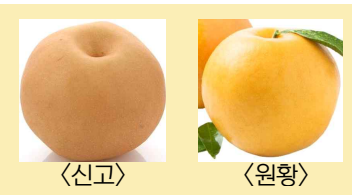
① 사과

- (출하) 올해 탄저병 발생 등으로 추석 사과 출하량은 전년 대비 2.3% 감소
 → 금년 추석 수요량(6만톤) 대비 많아 공급은 원활
 * 추석성수기(8.20~9.9) 출하량(천톤) : (21) 70.2 → (22) 68.6 > (평년) 63.1
- (가격) 사과 가격은 올해 생산량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상승 전망
 * 9월 도매가격(원/10kg, 홍로) : (21) 31,000 → (22) 33,000~38,000



② 배

- (출하) 올해 작황 호조로 추석 성수기 배 출하량은 전년 대비 3% 증가
 * 추석성수기 출하량(천톤) : (21) 58.8 → (22) 60.6 > (평년) 59.4
- (가격) 배 가격은 금년 생산량 증가로 하락 예상
 * 9월 도매가격(원/15kg) : (21) 48,900 → (22) 38,000~4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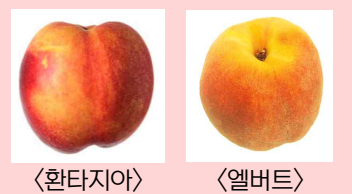
③ 포도

- (출하) 캠벨(얼리), 거봉 출하량은 전년 대비 감소, 샤인머스켓은 증가*
 * 올해 많은 농가가 캠벨거봉에서 가격이 비싼 샤인머스켓으로 품종전환(생산량 55% 증가)
 * 9월 출하량 증감률(전년대비, %) : (캠벨) △9.7 (거봉) △7.4 (샤인머스켓) 35.7
- (가격) 캠벨(얼리), 거봉 가격은 상승, 샤인머스켓은 하락 전망
 * 9월 도매가격 : [캠벨(원/3kg)] (21) 17,400 → (22) 17,000~21,000
 [거봉(원/2kg)] (21) 18,200 → (22) 18,000~22,000
 [샤인머스켓(원/2kg)] (21) 24,600 → (22) 20,000~24,000



④ 복숭아

- (출하) 천도계, 유모계 복숭아 모두 출하량 증가
 * 9월 출하량 증감률(전년대비, %) : (천도계) 0.6 (유모계) 3.5
- (가격) 천도계, 유모계 가격 모두 하락 예상
 * 9월 도매가격 : [환타지아(천도계, 원/10kg)] (21) 33,800 → (22) 29,000~33,000
 [엘버트(유모계, 원/4kg)] (21) 16,900 → (22) 12,000~16,000





GVC 전문가 : 2022년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 동향

- 'McKinsey - Taking the pulse of shifting supply chains(8.26)' 요약

※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며 **공급망 안정성 확보**는 기업들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았다. 코로나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기업들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어떠한 변화를 실행해왔는지, 앞으로는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는지 살펴보자

● “쉬운 것부터 먼저 하자”

- 지난 2년간 기업들은 **추가 재고 확보, 원자재 공급선 다변화** 등 단기 대응이 가능한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일정 부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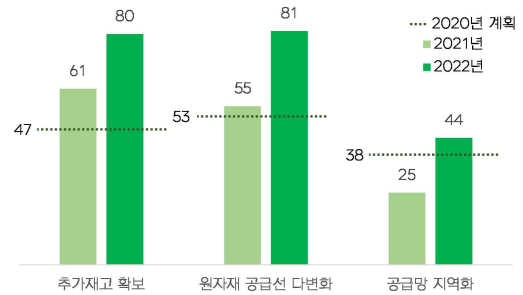
- '22년 기준 80% 이상의 기업이 성과를 이룬 것으로 조사

- 반면, **공급망 지역화***와 같이 장기적인 계획과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부문은 **변화가 더딘 것으로** 나타남

* 공급망 지역화(regionalization) :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최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망이 재편되는 추세

- '20년 조사에서 38%의 기업들이 공급망 지역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응답 → '21년 실제 이를 실행한 기업 비중은 25%에 불과 → '22년은 44%로 두 배 가까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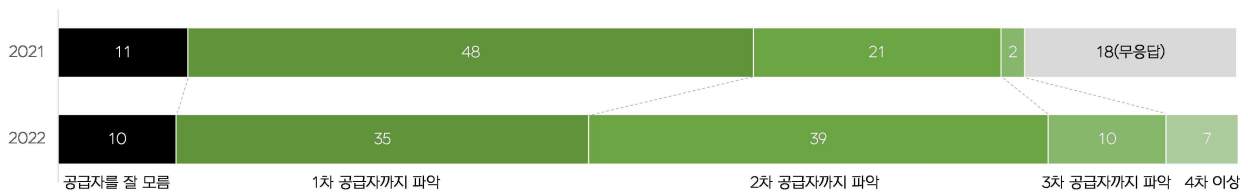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실행한 변화〉



● 올해 공급망 가시성(Visibility)이 크게 개선

- 지난해 자사의 2차 이상 공급자 및 관련 리스크를 파악하고 있다고 응답한 글로벌 기업의 비중은 23%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56%까지 증가해 **공급망 가시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글로벌 기업들의 자사 공급자 및 관련 리스크 파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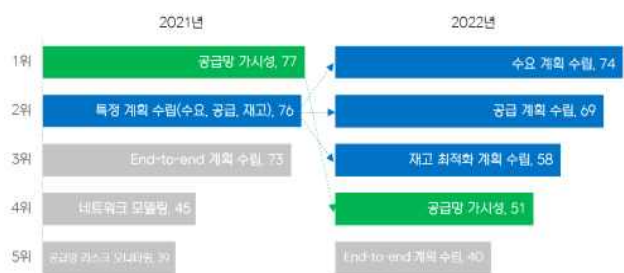
● 앞으로의 계획은? 공급망의 디지털화(Digitization)

- 80% 이상의 기업들은 향후 공급망의 **디지털화**를 위해 투자를 할 것이라고 응답

- 지난해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는 공급망 디지털화를 통한 **△공급망의 가시성 확보**였음(77%)

- 올해는 디지털화를 통한 **△수요·공급 계획 수립** (각각 74%, 69%), **△재고 최적화**(58%) 등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으며, **△공급망 가시성** (51%)은 4위로 우선순위가 내려감

〈공급망 디지털화의 목적〉





특별기고(전략물자관리원) : 미국 투자심사 제도 2편 (Outbound)

※ 최근 해외투자 관련 기술 유출, 국가안보 우려가 확대되며 미국·EU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해외직접투자(Outbound) 심사 관련 최근 동향에 대해 살펴보자

〈미국 투자심사 제도〉

26호 : 미국 국내 투자(Inbound)

27호 : 미국 해외 투자(Outbound)

● 해외직접투자(Outbound) 개요

- (의미) 투자국의 자본, 기술, 경영을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기업 활동
- (유형) 경영에 직접 참가할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해외로 이전하여 **현지에 생산 공장을 설립**(green field)하거나, 기존 생산기지를 흡수해 **경영권을 양도**(brown field)받는 형태의 투자로 구분
- (효과) 국가간 해외직접투자는 투자대상국 시장 진출 및 점유율 확대, 경영이익 증대 등 긍정적 측면, 다만, 투자대상국 정부에 대한 군사자금 공급, 첨단기술 유출 등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도 발생 가능**^{*}
 - * 최근 미국도 자국의 자금이 중국 군산복합체(CMIC, Chinese Military-Industrial Complex) 등 군사 현대화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인 투자금지 등 해외투자 관련 다양한 제도 도입 또는 검토 중

● 미국 해외직접투자 규제 동향

① 중국 내 특정기업에 대한 미국인 투자 금지

-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자국민 투자가 중국의 군사 현대화 지원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국 내 특정기업에 대해 미국인 투자금지 조치 강화**

일시	조치 내용
'22.8.2	· 중국의 방산·감시기술 관련 기업에 대한 미국인 투자 금지
'20.11.17	· 중국 민군융합 국가전략에 따라 중국 정부의 군사 및 정보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 중국기업* 을 지정 [*] 하고, 이에 대한 미국인 투자 금지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 13959호 발표) * Communist Chinese Military Companies (CCMC) 리스트, 당시 국방부에서 관리 ¹⁾
'21.8.2	· 기존 CCMC 리스트를 업데이트하여 방산·감시기술 분야 군산복합체²⁾로 지정 하고, 미국인 투자 금지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명령 13959호를 보완하는 행정명령 14302호 발표) *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소관 이관

② 중국 불투명한 기업에 대한 미국 내 증권거래 제한

- 美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가 검사하지 못하는 외국 회계 법인을 통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자료 제출 및 정보 공시 등 규제 부과**
 - * PCAOB(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 상장기업이 외부회계법인을 사용하여 수행한 감사 보고서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美 증권거래위원회가 예산 및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음
-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에 대한 **회계정보의 투명성 및 감독권 강화**(3년 연속 PCAOB 검사를 받지 않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美 증권거래소에서 **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 가능**)
-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에 투자한 **자국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국 법률을 타국에까지 미칠 수 있는 역외적용(extraterritorial)이 가능해짐³⁾**
 - * '외국기업책임법(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 HFCAA)' 제정(21.1.1일 발효)
 - ** SOX법(Sarbanes-Oxley Act) 제104조(Inspections of registered public accounting firms) 개정(20.12.28 서명)

1) [전략물자관리원 이슈심층분석 Report] 미국의 중국군사기업(CCMC) 대상 투자금지 조치 (2021.3.29)

2) [전략물자관리원 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2-6호] 미국 투자금지 대상 기업(중국 군산복합체) 등재 현황 (2022.1.27)

3) [전략물자관리원 기초자료] 美 외국기업책임법 (2021.12.28)

③ 해외투자(Outbound) 심사제도 도입 검토

- 최근 美-中 경쟁 심화, 러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미국 정계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우려 국가에 대한 해외투자 심사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⁴⁾
 - '21.5.26일 미국 의회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외투자에 대한 심사제도 도입 법안(NCCDA 2021, 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 of 2021)이 처음 발의된 이후 해외투자 심사제도 도입 방안 지속 논의 중

〈 미국 상·하원 해외투자 심사 관련 주요 법안 심의 경과 〉

일시	상원법안	하원법안	비고
2021.5.26	「국가핵심역량수호법」 「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NCCDA)」	-	• 美 상원의원 Casey, Cornyn 공동으로 해외투자 심사제도 도입 법안 발의
2021.6.8	「미국혁신및경쟁법」 「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USICA)」	-	• 상원은 「USICA」에 「NCCDA」를 반영하려 하였으나 무산, 하원은 이를 반영하여 「COMPETES Act」 발의
2022.2.4	-	「미국경쟁법」 「America COMPETES Act」	
2022.3.28	• 「America COMPETES Act」 내용을 반영한 USICA 수정(안) 美 상원 통과 • 現, 양원에서 제시한 의견 차이에 대한 협상(Resolving Differences) 진행 중 (※ 해외투자 심사 포함)		

※ 「국가핵심역량수호법(NCCDA 2021, 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 of 2021)」

- (개요) '21.5.26일 美 상원의원 Casey와 Cornyn은 국가핵심 역량을 위협하는 해외투자에 대한 심사제도 도입 법안 발의
- (추진 배경) Casey와 Cornyn은 최근 자국 내 핵심품목 공급이 중국 등 공산국가에 의존하여 온 상황이 우려된다고 설명하며, 자국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적성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주요 내용) 해외 투자가 美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핵심역량위원회(CNCC, Committee on 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설립 → 국가 핵심역량 관련 사업이 '우려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투자 심사
 - *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 : ①「Secure and Trusted Communications Networks Act」의 section 8(c)(2)에 명시된 '적성국'⁵⁾이거나, ②「Tariff Act of 1930」 section 771(18)에 명시된 '비시장경제 국가'⁶⁾까지 포함
 - ** 우려 기업(Entity of Concern) : ①우려 국가에 위치한 모기업 또는 ② 해당 국가와 상당한 연관성을 가진 외국인에 의해 작간접적으로 통제 혹은 소유되는 기업

● 시사점

- 미국은 '18년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을 통해 국내투자(Inbound)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했으나, 해외투자(outbound) 심사를 위한 근거법 및 소관부처 지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 * 前 트럼프 행정부는 「FIRRMA」에 해외투자 심사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였으나 기업외화관계부처 등 지지를 받지 못함
← 수출통제와의 중복성, 재무부·국방부의 심사 권한 관련 이견, 기업의 해외투자 의지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
- 현재까지 美 의회로 제시된 해외투자 심사 관련 법(안)은 프로세스 구성이 기존 미국 수출통제와 유사함을 보이며, 향후 국가안보상 이유로 해외투자 심사와 관련된 다양한 법안, 조치 등 가속화 예상
 - 최근 재무부는 정부에 투자 차단(block)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의무신고만을 하도록 하는 초안(draft bill)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짐(「Sensitive Technologies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Act of 2022」)
 - * 해외투자 신고 의무는 적용되나 해당 투자의 금지·중단·원화·기타 제약은 적용되지 않도록 함(해외투자 데이터 확보가 목적)
-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는 신시장 진출, 생산거점 확보 등 긍정적 측면과 함께 무역수지 적자, 첨단기술 유출 등 부정적 영향도 존재하는 바, 우리나라 해외투자를 심사하는 조작제도 운영 등에 대한 검토 필요

4) [전략물자관리원 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2-63호] 미국기업의 해외투자 제한을 위한 미국 정계의 동향(2022.6.30)
 5) 미국 국가안보와 국민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마두로 정권)
 6) 미국 상무부가 반덤핑 및 반덤핑 관세를 적용할 목적으로 제시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중화인민공화국, 조지아, 키르기스, 몰도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GVC 소식통 ① :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 사업 안내

● [항공운송] 프랑크푸르트(독일), 도쿄(일본) 수출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사업 (KOTRA·대한항공)

- (사업개요) 항공운송 부족 애로사항 지속 →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항공기 수출 스페이스 운송 증편(~22.12월)

〈 항공 - 항차 정보 〉

노선	출발예정일(매주)	예약마감일	서류/화물(입고)마감
인천(ICN) → 독일(FRA)	수요일	화요일 12:00	화요일 16:00 이전
	일요일	금요일 12:00	금요일 16:00 이전
인천(ICN) → 도쿄(NRT)	화요일	월요일 12:00	월요일 15:00 이전
	금요일	목요일 12:00	목요일 15:00 이전

- (상세내용) [KOTRA-대한항공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 안내\(클릭\)](#)를 통해 확인
* 일반 화물 대상(냉장·냉동·위험물 등 특수화물 진행 불가)/ 전용 스페이스: 편당 3톤 내외
- (참가신청) [링크\(클릭\)](#) 또는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 항공물류수행사 ☎ 02-310-6554

● 수출 중소기업 전용 선박 운송 지원 안내 (KOTRA·삼성SDS·CJ대한통운)

- (사업내용) 선복부족 애로사항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기업이 기 확보한 정기선복의 일부를 국내 중소 수출기업에게 제공하여 적기 수출 지원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및 KOTRA 회원사
- (신청기간) 추후 공시 시까지 수시 접수(접수 물량 초과될 경우 선착순 마감)
- (서비스 노선) 출항: 부산항 / 도착: 하단 참조

〈 해상 - 출항 정보 〉

운송지원사	구분	가용선복(TEU/Week)	주요기항지
CJ대한통운	일본	10	도쿄, 나고야, 오사카, 고베
	동호주	5	브리즈번, 시드니, 멜버른
	북미 서안	3	(서안) 엘에이, 롱비치, 시애틀, 타코마
	북미 동안	2	(동안) 뉴욕, 사바나, 노퍽
	중남미 서안	3	(서안) 만자닐로
	중남미 동안	2	(동안) 산토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이타자이, 몬테비데오
	유럽	15	안트워프, 로테르담, 함부르크, 사우스햄튼, 그디니아, 르하브르
	서지중해	5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제노아
	동지중해	5	이스탄불, 이즈미트
	아프리카	5	더반, 몸바사 ▶서아프리카 제외
	중동	7	제벨알리, 담만, 소하르
삼성 SDS	서남아	8	나바세바, 첸나이, 카투팔리 ▶방글라데시 제외
	북미 서안	40	LA, 롱비치, 오클랜드, 시애틀, 밴쿠버
	북미 동안	10	뉴욕, 사바나
	북유럽	20	로테르담, 함부르크, 앤트워프
	지중해	10	제노아,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포스
	남미 동안	20	산토스, 이타자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몬테비데오
아시아	20	호치민, 방콕, 람차방, 포트켈랑, 하이퐁(추가)	

- (상세내용) [CJ대한통운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안내\(클릭\)](#) 또는 [삼성SDS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안내\(클릭\)](#)을 통해 확인
- (참가신청) ① CJ대한통운: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② 삼성SDS: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한국무역협회 기업 물류 지원사업〉

기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해상운송]																				
 (포스코)	벌크화물 수출 회원사	[중소기업 벌크화물 합적·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대상: 벌크화물 수출 중소기업(철강제품) or 포워드 가능품목: 코일·판재류·선재 등 (이외 품목은 추가 확인 필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출항지</th> <th>도착지</th> </tr> <tr> <td>포항항, 광양항 (포스코 제철소 소재지)</td> <td>세계 주요 80개 항만 (미주·유럽·서남아·중국·일본·동남아)</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륙운임: 수출기업 부담 	출항지	도착지	포항항, 광양항 (포스코 제철소 소재지)	세계 주요 80개 항만 (미주·유럽·서남아·중국·일본·동남아)	포스코수출물류합적플랫폼 (www.steel-n.com) 사업안내 바로가기 ① 플랫폼 회원가입 ② 가입승인(포스코) ③ 합적 신청													
		출항지	도착지																	
포항항, 광양항 (포스코 제철소 소재지)	세계 주요 80개 항만 (미주·유럽·서남아·중국·일본·동남아)																			
 (현대글로벌비스)	Breakbulk화물 수출 회원사	[자동차운반선(RORO) 활용 중소기업 화물 합적·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대상: Breakbulk 화물 수출 중소기업 or 포워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출항지</th> <th>도착지</th> </tr> <tr> <td>광양항, 마산항, 평택항</td> <td>미주·유럽·남미 주요 항만</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신청 화물에 대한 현대글로벌비스의 추가 확인 후 합적·운송 실시 ※ 신청 화물에 대한 선적 확정 시, 출항·선적일정 개별 공지 	출항지	도착지	광양항, 마산항, 평택항	미주·유럽·남미 주요 항만	신청서 작성/제출 (logistics01@kita.or.kr) 사업안내 바로가기													
		출항지	도착지																	
광양항, 마산항, 평택항	미주·유럽·남미 주요 항만																			
[항공운송]																				
 (대한항공)	항공화물 수출 회원사	[중소 수출기업 전용 스페이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대상: 수출 중소제조업체 (포워드 신청불가) 가능 품목: 일반 화물 (특수화물 불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노선</th> <th>출항일</th> <th>예약 마감</th> <th>서류/화물 (입고)마감</th> </tr> <tr> <td rowspan="2">인천 → 로스엔젤레스</td> <td>수요일</td> <td>월요일 12:00</td> <td>화요일 12:00 이전</td> </tr> <tr> <td>일요일</td> <td>목요일 12:00</td> <td>금요일 12:00 이전</td> </tr> </table>	노선	출항일	예약 마감	서류/화물 (입고)마감	인천 → 로스엔젤레스	수요일	월요일 12:00	화요일 12:00 이전	일요일	목요일 12:00	금요일 12:00 이전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사업안내 바로가기						
		노선	출항일	예약 마감	서류/화물 (입고)마감															
인천 → 로스엔젤레스	수요일	월요일 12:00	화요일 12:00 이전																	
	일요일	목요일 12:00	금요일 12:00 이전																	
[복합운송]																				
 (LX판토스)	컨테이너 화물 수출 회원사	[유럽·러시아항 해상·철도 복합운송 선복지원 및 운임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9월 러시아항 추가 운임 할인 지원 대상: 국내 수출기업(실화주) (포워드 신청불가) 가능 품목: 20피트·4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 (LCL 불가) ※ 단, TCR 노선은 40피트 컨테이너만 가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colspan="3">해상+철도 복합운송</th> <th>내륙운송</th> </tr> <tr> <th>노선</th> <th>출발지</th> <th>도착지</th> <th>최종도착지</th> </tr> <tr> <td rowspan="2">TCR</td> <td rowspan="2">인천/평택</td> <td>폴란드 말라세비치</td> <td rowspan="2">유럽 전역</td> </tr> <tr> <td>러시아 모스크바</td> </tr> <tr> <td>TSR</td> <td>부산</td> <td>폴란드 말라세비치</td> <td>모스크바 인근</td> </tr> </table>	해상+철도 복합운송			내륙운송	노선	출발지	도착지	최종도착지	TCR	인천/평택	폴란드 말라세비치	유럽 전역	러시아 모스크바	TSR	부산	폴란드 말라세비치	모스크바 인근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사업안내 바로가기
		해상+철도 복합운송			내륙운송															
노선	출발지	도착지	최종도착지																	
TCR	인천/평택	폴란드 말라세비치	유럽 전역																	
		러시아 모스크바																		
TSR	부산	폴란드 말라세비치	모스크바 인근																	
[물류 보관]																				
 (칼트로시스)	컨테이너 화물 물류센터 보관 희망 기업	[부산신항 물류센터 보관장소 제공 및 요금 할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th> <th>서비스 내용</th> <th>여부</th> <th>비고</th> </tr> <tr> <td>1</td> <td>수출업체 → 물류센터 화물운송</td> <td>불포함</td> <td>수출업체가 포워드/운송사 통해 직접수배</td> </tr> <tr> <td>2</td> <td>물류센터 상하차</td> <td rowspan="3">포함</td> <td rowspan="3">시장이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td> </tr> <tr> <td>3</td> <td>물류센터 보관</td> </tr> <tr> <td>4</td> <td>물류센터 → CY터미널 셔틀</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 대상 (특수 컨테이너 문의 필요) ※ 장기보관 희망 시, 보관일 관련 사전 협의 필요 		서비스 내용	여부	비고	1	수출업체 → 물류센터 화물운송	불포함	수출업체가 포워드/운송사 통해 직접수배	2	물류센터 상하차	포함	시장이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	3	물류센터 보관	4	물류센터 → CY터미널 셔틀	신청서 작성/제출 (hjo117@kita.net) 사업안내 바로가기	
			서비스 내용	여부	비고															
1	수출업체 → 물류센터 화물운송	불포함	수출업체가 포워드/운송사 통해 직접수배																	
2	물류센터 상하차	포함	시장이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																	
3	물류센터 보관																			
4	물류센터 → CY터미널 셔틀																			

-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화물예약데스크」 (해상화물) ☎ 02-6000-7617/5754 / logistics01@kita.or.kr
 (항공화물) ☎ 02-6000-5754 / hjo117@kita.net



GVC 소식통 ② : 공급망 관련 상담회 및 세미나 개최 소식

● 2022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 공급선 발굴 상담회

- 한-중남미 역내 국가 간 수교 60주년 기념, IDB(미주개발은행) 협업을 통하여 경제안보 핵심품목인 광물 등 생산·수출 중남미 현지 기업과 해외 공급선 발굴을 희망하는 우리기업 간 상담 지원

- 주최/주관 : 기획재정부, 미주개발은행(IDB) / KOTRA, 수출입은행
- 일시/장소 : 9월 30일(금) / 그랜드 하얏트 서울
- 신청기한 : 9월 15일(목) 限
- 사업내용 : 중남미 현지 광산개발업체, 광물생산/판매회사, 광물 트레이더(종합상사, 오프테이커, 광물 전문 트레이딩 업체 등), 아르헨티나 등 국가 내 주(州)정부 관계자 등 현지 광물 수출 관계자와 광물 소싱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 간의 비즈니스 상담회

※ 상담회 참가 확정 중남미 기업/기관 (세부 기업 정보는 참가신청 링크 첨부파일 확인 요망)

국가	기업/기관명	對한국 수출 등 비즈니스 가능 품목
멕시코	IGNEOUS (KNZ Group)	형석
브라질	Lion Mining	흑연 / 철강괴 / 석회석
아르헨티나	Minera Santa Rita S.R.L.	붕산 / 리튬(오프테이크 계약 통해 안정적 공급 받고자 희망하는 투자 파트너 발굴 희망)

- 참가신청 : [2022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 공급선 발굴 상담회\(클릭\)](#) 내용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 (첨부)참가 신청서 작성하고 기업 소개서, 제품 카탈로그(영문) 등을 첨부
- 참고사항 : 비즈니스 서밋 공식 홈페이지도 <https://korea-lac.com> 참고 요망
- 공급선 발굴 상담회 외 그린에너지, 스마트SOC 등 분야 수출상담회도 추진 예정인바, 관심 기업은 아래 문의처로 개별 문의 바람
- 문의처 : KOTRA 공급망모니터링팀 정은정 과장 ☎ 02-3460-7759 / cocoej@kotra.or.kr
KOTRA 공급망모니터링팀 김수빈 사원 ☎ 02-3460-3256 / subin0320@kotra.or.kr

● 2022 KOREA-ASEAN Maritime Week (한-인니 오프쇼어 콩그레스 KIOC 2022)

- 우리 조선·해양플랜트 기업의 아세안 조선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인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ASEAN 바이어들과 오프라인 1:1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온라인 상담도 병행)

- 일시/장소 : 10월 17일(월)~21일(금) / 인니 발리 Sheraton 호텔
- 신청기한 : 9월 16일(금) 限
- 참가신청 : [2022 KOREA-ASEAN Maritime Week\(클릭\)](#) 내용 검토 후 신청하기 클릭 / (첨부)참가 신청서(엑셀) 작성하여, 기업 및 제품 영문 카탈로그와 압축파일로 첨부하여 신청
- 참고사항 : 온라인 참가기업은 출장 불요 / 오프라인 참가기업* 대상 지정항공편 이용 시 항공임 50%, 지정호텔 숙박비 100%, 공항 출영송 지원 (단, 인도네시아 도착비자 USD35는 기업 부담)
※ 최종 참가기업은 시장성 평가 통하여 선정, 참가자 이메일로 선정결과 개별 공지 예정
- 문의처 : KOTRA 수리바야무역관 고창현 과장 ☎ (+62)-31-9921-0211 / chk@kotra.or.kr
KOTRA 경제협력사업팀 / diplomacy2@kotra.or.kr

● (한국무역협회) 물류 디지털 전환(DT) 오픈이노베이션 스타트업 모집

- 혁신 DT 스타트업과 화주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 활성화 분위기 조성

- 신청기한 : 9월 16일(금)
- 모집분야 : 육상·해상·항공운송, 물류시설 등에 관련된 DT 기술/솔루션/플랫폼 보유 스타트업
- 참가신청 : [물류 디지털 전환 오픈이노베이션\(클릭\)](#) 내용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 기본신청서(서식), 사업자등록증, 회사소개서, 회사 CI제출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 옥웅기 대리 ☎ 02-6000-5628/5935 / wk.oak@kita.or.kr

- 무역협회 X 물류 스타트업 DT 서비스 이용방식 -



* 신청자 전달 : MS excel 활용하여 신청자 명단 전달 예정

** 서비스 제공 : 회원사 사용도 및 코드백에 따라 우수 서비스의 경우 주후 API 연동 가능성 검토

작성 공급망 모니터링실(KOTRA), 산업분석실(한국무역협회)



【참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소개 및 활용 방법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Korea Center for GVC) 출범 (‘22.2.9)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KOTRA 등이 중심이 되어 출범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상시·전문적 분석 역량을 갖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서,
 - ①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주요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 심층 분석
 - ② 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신속 전파 및 대응조치를 제언하는 등 국가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용 지원
 - ③ 정부와 민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
- ‘분석센터’는 **종합전략실**(산업통상자원부 담당), **산업분석실**(무역협회 담당), **공급망 모니터링실**(KOTRA 담당) 등 3개 실을 두고, 3개 기관의 전문인력에 더하여, 업종별 협단체의 파견 인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

● ‘글로벌 공급망 유관기관 협력회의’ 개최 (‘22.3.21)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협력기관 확대**(기존 12개 → 약 30개) 및 현장 중심의 공급망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편 전(12)	개편 후(29)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6)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16)
무역 통상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3)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수입협회 (4)
에너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3)
연구 기관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4)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활용 방법 (종합 문의 : gvc_research@kita.or.kr)

- (구독 문의)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대외발간물) 3.3(목)부터 **매주 1회(목요일) 발간 중**
 - 산업통상자원부(정책·정보·간행물), 한국무역협회(분석센터), 코트라(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무역협회와 KOTRA가 뉴스레터 형태로 메일 송부 중, SNS로 쉽게 전파·확산이 가능한 PDF로 작성
 -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카카오톡 > 오픈채팅방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검색 > 프로필 설정 > 대화방 참여
 -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mGL3Obe>
- (품목 문의) 공급망 분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문의 및 제안 → 중요성·파급력 등 검토하여 분석대상 선정
- (필자 참여) 본인의 지식·경험을 활용하여 필자로 참여 가능 (단순 정보제공 형태로 참여도 가능)

글로벌 경제지표('22. 9. 7. 수)

[환율]

	'20.12.31	'21.12.31	'22.8.31	'22.9.2	'22.9.5	'22.9.6	전일비	21말비
₩/U\$	1,186.30	1,188.80	1,337.60	1,362.60	1,371.40	1,371.70	+0.02%	+15.39%
선물환(NDF,1월물)	1,186.30	1,190.00	1,337.90	1,362.60	1,371.40	1,373.00	+0.12%	+15.38%
₩/CNY	166.04	186.51	194.16	197.49	197.69	197.82	+0.07%	+6.06%
₩/¥100	1,051.19	1,032.48	965.99	971.20	976.92	971.87	-0.52%	-5.87%
Y/U\$	103.34	115.14	138.47	140.30	140.38	141.14	+0.54%	+22.58%
U\$/EUR	1.2279	1.1318	1.0026	0.9964	0.9899	0.9956	+0.58%	-12.03%
CNY/U\$	6.5305	6.3681	6.8961	6.9036	6.9350	6.9413	+0.09%	+9.00%

* '21년 평균 환율: (₩/U\$) 1144.6원, (₩/¥100) 1041.9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분	'21년 최저(해당일)	'21.12.31	'22.9.5 (전일)	'22.9.6	전일(9.5)비			
					전일(9.5)비	'21년최저비	'21년말비	
원유(두바이)	50.05 (1.5일)	77.12	95.38	95.25	▼0.1 -0.1%	▲45.2 +90.3%	▲18.1 +23.5%	
철광석	87.27 (11.18일)	120.75	98.00	97.30	▼0.7 -0.7%	▲10.0 +11.5%	▼23.5 -19.4%	
비 철 금 속	구리	7,755.50 (2.2일)	9,692.00	7,652.50	7,707.00	▲54.5 +0.7%	▼48.5 -0.6%	▼1,985.0 -20.5%
	알루미늄	1,951.50 (1.19일)	2,806.00	2,290.50	2,260.00	▼30.5 -1.3%	▲308.5 +15.8%	▼546.0 -19.5%
	니켈	15,907.00 (3.9일)	20,925.00	21,000.00	21,355.00	▲355.0 +1.7%	▲5,448.0 +34.2%	▲430.0 +2.1%

[반도체]

	'20	'21	'22.6	'22.7	'22.8	9.1	9.2	9.5	9월(~5)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07	3.42	3.37	3.11	2.76	2.58	2.56	2.57	2.57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1.9%	+8.0%	-25.4%	-31.6%	-34.0%	-33.4%	-32.7%	-32.4%	-31.3%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5.71	7.45	8.01	6.83	6.57	6.58	6.57	6.57	6.57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7.0%	+32.8%	+23.0%	+1.4%	-4.2%	-4.7%	-4.7%	-4.7%	-5.4%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분	'21.12.31	'22.8.12	'22.8.19	'22.8.26	'22.9.2	전주(8.26)비	
						전주(8.26)비	'21년말비
운임지수	5,046.66	3,562.67	3,429.83	3,154.26	2,847.62	-9.7%	-43.6%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분	'21.12.24	'22.7.29	'22.8.31	'22.9.1	'22.9.2	'22.9.5	전일(9.2)비	
							전일(9.2)비	'21년말비
BDI	2,217	1,895	965	1,002	1,086	1,133	+4.3%	-48.9%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협력기관

